

## ‘9평 공산당’ 전파 10주년, 홍콩에서 대행진으로 ‘3퇴’를 성원하다

[밍후이왕] (밍후이기자 정위엔 홍콩 취재 보도) 2004년 11월, 대기원 시보 연재 사설 ‘9 평 공산당’(이하 ‘9 평’)이 발표됐다. ‘9 평’은 사람들을 중공의 거짓과 폭력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게 하여 ‘3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의 대고조를 일으켰다.

2014년 12월 7일, 파룬궁수련생들은 홍콩에서 성대한 집회와 대행진으로 ‘9 평’ 발표 10주년을 기념했고, 1억 8천 6백만 중국동포들의 ‘3퇴’를 성원하고 양심을 깨우치고 박해를 반대할 것을 호소했다.

거대한 행진대열은 행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민들은 잇달아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촬영했다. “파룬따파하오”, “파룬궁 파이팅”라는 외침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중국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은 처음으로 파룬궁행진을 보았다면서 매우 감동했다.

충칭에서 홍콩으로 쇼핑 온 탕 아가씨와 뤼 아가씨는 상서롭고 의로운 파룬궁 행진대열을 보고 놀랐다. 탕 아가씨는 “홍콩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파룬궁이 세계에 널리 전해졌고 중공만이 박해한다는 말을 듣고 탕 아가씨는 행진대열을 바라보면서 “파룬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공산당은 왜 금지하죠?”라고 말했다. 두 여성은 가방에서 ‘9 평 공산당’과 진상자료를 꺼내 기자에게 보이면서 “가지고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라고 신나서 말했다.



광주에서 홍콩에 와 공부하는 한 여대생은 예전에 인터넷에서 파룬궁 반박해를 들어 보기는 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직접 보니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여러 친구들이 모두 ‘3퇴’를 했다고 하면서 ‘9 평’과 ‘3퇴’는 대륙에서 아주 널리 퍼졌다고 말했다.

홍콩시민 두 선생은 행진활동이 매

우 좋다고 말하면서 “중국인들이 하고 싶어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군요.” “저는 ‘9 평 공산당’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중국여성은 파룬궁수련생에게 “나는 당신들이 좋고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들은 꼭 견지하세요.”라고 말했다. ◇

- “당신은 탈퇴 하였습니다가? 지금도 탈퇴 안 했다면 돈 꾸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당년에 거짓말에 속아 당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고 평생 분투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이 친구는 ‘3퇴’(탈당, 탈단, 탈대)를 하지 않았으니 멀리하세요.”
- “입당 시 공산주의를 위해 분투 하겠다고 독한 맹세를 했는데 이런 맹세에 대해 나는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빨리 탈퇴 했어요. 만일 정말 어떤 응보가 있더라도 나는 이미 탈퇴했으니 양심에 걸리지 않고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 “소선대에 들었어요? 독한 맹세를 없앴어요?” “탈퇴했어요!” “인재네요! 배양할 수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면 신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길림 연변 팔가자림업국은 사사로이 검은 감옥을 설치했다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길림 보도)화룡현 팔가자림업국 '610'과 경찰들은 근 2 개월 동안 연속으로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학습반'에 감금하고 강제로 세뇌했다. 소위의 '학습반'은 기실 불법적으로 설치한 검은 감옥이다.

2014년 11 월 28 일 오후 3 시 30 분경, 팔가자림업국 국보대대 자오즈쿠이와 왕자후이는 한 무리를 거느리고 파룬궁수련생 우원잉(吳文英, 남, 71 세)의 집에 뛰어 들어 물건을 마구 뒤집어 집안을 온통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는 대법서적과 수련하지 않는 아들의 컴퓨터 등 물건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는 우원잉을 납치하여 팔가자 림업국 초대소 107 방에 감금했다.

가족은 도처에 알아봐서야 겨우 노인이 갇힌 곳을 알아냈다. 11 월 29 일, 가족은 초대소로 찾아가 노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는데 자오즈쿠이와 왕자후이 등 4, 5 명 악인들은 우원잉의 가족을 강제로 밀어 냈는데, 공안국 부국장 동리창은 우원잉의 딸을 때렸고, 자오즈쿠이는 우원잉 부인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고(지금까지도 노인은 손이 아프다) 자오즈쿠이는 기고만장해서 110 에 신고 하겠다고 했는데 공안국이 마치 그들이 꾸린 듯했다. 그 경찰들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11 월 26 일, 팔가자 삼림공안국 국보

교도관 왕자후이를 두목으로 한 6, 7 명이 파룬궁수련생 리허싱(李和兴, 남, 77 세)의 집 문을 힘껏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억지로 밀어젓히고 강제로 들이닥쳐 곳곳을 뒤집었다. 당시 집안에는 리허싱의 부인이 있었지만 토비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대법서적과 향로, 두 노인의 생활비 8000 원과 월급카드, 신분증 등 개인재산을 강탈해 갔다.

당시에 리허싱이 집에 없었기에 왕자후이는 “이 늙다리 영감은 어디로 갔나? ……”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 경찰은 리허싱 부인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이 늙다리 노친을 죽여 버리겠다 ……”고 했고 한 여경찰은 “향 가루를 전자 밥솥에 쏟아 넣으라.”고까지 했다. 이때 리허싱이 밖에서 돌아오자 경찰들은 와락 덮쳐 들어 리허싱을 팔가자 림업국 초대소로 납치해 박해를 가했다.(리허싱은 이미 집으로 돌아왔다.)

10 월 31 일 아침 6 시경에 팔가자 림업국 파룬궁수련생 양수편(楊淑芬)이 연변 주 정법위원회와 팔가자 림업국 '610'주임 장원신등에게 납치되어 연길대성 세뇌반에 감금되었다.

11 월 18 일, 팔가자림업국 직공병원 원장 귀젠린은 오후 1 시 반에 회의를 한다는 거짓말로 황구림장(荒沟林场)진료소 호사인 파룬궁수련생 판구이룽(范桂荣)을 불러 낸 후 하북 파

출소 소장 자오바오린이 연길 세뇌반으로 납치해 갔다. 그곳의 사악한 자들은 판구이룽을 2박3일 동안 자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수련을 포기하게 하려고 핍박했다.

11 월 23 일, 팔가자림업국 불법인원들이 장 할아버지를 납치했다. 26 일 오후에는 팔가자의 사악한 경찰 왕자후이와 5, 6 명의 사복경찰들이 파룬궁수련생인 리(李) 할아버지를 납치했다.

연변'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불법조직)은 해마다 세노반을 꾸리는데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미행하고, 감시하고, 소란을 일으킨 후 세뇌반에 납치해간다. 소위의 '학습'은 기실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학대하여 '真、善、忍 (쩐, 썬, 런)'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고 도덕의 승화를 포기하게 함으로서 신심의 건강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뇌반에서 매 파룬궁수련생들을 단독으로 가두고, 24 시간을 감시하며, 몸에 간직했던 휴대전화 등 물품을 몰수해갈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집식구를 포함)일체 연결을 금지시켰다. 악인들은 고압 세뇌로 파룬궁수련생들을 수련을 포기하라고 핍박했으며, 또 대법사부님을 모욕하고 대법을 왜곡했다.

지금도 여전히 팔가자림업국 초대소에 세뇌반을 꾸리고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다.

## 청년 학생들 파룬궁을 수련하여 심성이 제고되고 근심걱정이 적어 졌다

(밍후이기자 황위성 대만 대북에서 보도) 2014년 대만 파룬따파 수련심득 교류회가 11 월 9 일에 대만대학에서 성대히 열렸다. 사회에서 수련의 함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년 혹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련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대만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몇 십만 명이나 되며 사회 각 계층 그 어디에나 다 있다..

대만 최고 학부인 대만대학에는 적지 않은 교수와 학생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대만대학 의학원 직능치료계의 3 학년학생 선차이페이 (좌)와 대만대학 농학원 농예계의 신입생 추위제(우)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또 학생 파룬따파 협회도 있다.

대만대학 의학원 직능치료계에 공부하는 선차이페이(沈采蓓)와 대만대학 농학원 농예계의 추위제는 협회의 한 성원이다. 그녀들은 파룬궁 수련을 통해 도덕인품을 중시하게 되어 더는 독실에 집착하지 않고, 복잡한 사회 모순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되었으며, 무의미한 고민을 덜 수 있었다고 약속이나 하듯 이구동성으로 말했다.